

TRANS- HUMANITIES

Title : 인문성과 문본성, 그 편재적 성격: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구상
The Ubiquities of the Humanities and Textuality in Human
Experience

Author(s) : 정대현 (Daihyun CHUNG)

Source : *Trans-Humanities*, Vol. 8 No. 1 (2015), pp. 5-40.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인문성과 문본성, 그 편재적 성격: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구상¹

정대현 (이화여자대학교)

I. 들어가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통증에 시달린다면, “난 지금 환잔데요, 병원에 가야겠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이러한 대답은 나의 정체성이 나의 현재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아프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대답을 할까? 이 물음에서 ‘나’는 물음을 묻는 화자 자신이고 그 화자는 자신의 과거의 행적들과 미래의 가능성을 연결해 주는 지금 여기에서 갖는 중요한 관계들의 주체이다. 이 물음에 대해 합리주의 전통에서는 영혼의 천상적 주민번호로, 경험주의 전통에서는 지각(知覺)들의 다발로 대답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자신의 이성을 용감하게 사용하라”(Sapere aude)라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조언(13) 이후, 인간의 정체성은 현재성에 포함된 관계성으로 볼 뿐 영원성으로 실체화 시키지 않는다(백종현 50-52). 다시 말해 현재성의 추구는 개인이 자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이지만 그 자율성의 최대화는 타자의 자율성의 최대화와 맞물린 관계에서

1. 이 논문의 초고는 <인문예술교육연구회>(이화여자대학교; 2014.08.09)와 <인문한국 서울대 이화여대 공동 릴레이 심포지엄>(서울대학교; 2014.10.07)에서 읽고 토론하여 수정되고 발전된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 특히 박삼근, 백종현, 송기정, 김진희, 이혜경, 신상규, 김애령, 강성원 교수께 사의를 표한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한 불란서 시인의 생각을 확장하여, 현대를 산다는 것은 현재를 영웅화하려는 의지이고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를 이렇게 살고자 할 때 나 같은 인문학자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21세기 현대성의 상황은 무엇인가?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하버마스 310-11; 오생근 185-86).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두 가지 명제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수학화, 정보화, 언어화되면서,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가 질적 범주로부터 양적 범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자물리학은 다양한 조건에서 빛이 방출되는 주파수를 연구함으로써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기초한 분광분석법으로 광물에 존재하는 원소 등의 속성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정대현, 「지칭의 자연화」 46-48). 허블 우주망원경은 빛이라는 각종 아날로그 현상을 디지털화하여 HUDF(Hubble Ultra-Deep Field)라는 영상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몇 천억 넘는 별을 거느리는 개별 갤럭시들이 몇 천억 넘게 있으며, 이들의 요소, 나이, 크기, 모양, 색채 등을 보여 주었다. 유전자 생물학은 DNA의 아날로그 atcg를 디지털화하는, 염기서열분석을 고안하여, 디지털 정보들을 읽어내고, 생명 세포의 속성들을 상술하여 생명의 유전적 정보들의 담지자를 ‘디지털 파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명체 정보의 디지털화는 유전 정보를 새롭게 쓸 수 있게 하여, 바이오연료 등 많은 생명체를 조합하는 합성유전체학(synthetic genomics)을 가능하게 하였다(Church and Regis 46-50). 자연과학에서의 이러한 성공은 사회과학에서도 질적 접근에서 양적 접근으로의 선화를 강화하는데 자극하고 있고 질적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던 심리학에서도 양적 방법론의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는 <인문학은 양적으로 접근되지 않는 경험의 질적 해석의 분야이다>라는 명제이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개체들의 양적인 기술패턴에 따라 설명이나 이해의 구조에 이른다면, 인문학은 인간 경험의 질적인 현

상의 질서에 따라 가능한 해석의 선택지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문사철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문학은 현상 기술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가능성의 세계나 그 부분을 상상하는 행위이거나 그 결과이다. 사학도 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학은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해석할 때 선택하는 특정한 체계가 무엇이나에 따라 해석의 개연성이 달라진다. 사학의 사건과 사회과학의 사건은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사회과학의 사건은 개항적으로 나타나지만 유형화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데 반하여, 사학의 사건은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특수>한 속성을 가지므로 유형화의 일반화보다는 독특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철학은 사실 기술이 아니라 보다 더 설득력 있는 개념적 체계의 구성 활동이다. 이처럼 문사철은 현실 세계의 대상에 대한 양적 계산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가능세계의 질적 조건을 상상하는 활동이다.

21세기 현대성의 상황을 위의 두 명제로 파악한다면, <양적 과학은 모든 문체와 씨름하지만 질적 연구는 문자적 문본 주제에 한정 한다>는 보조가설을 첨가할 때, 인문학이 설 자리는 좁아지면서 소위 '인문학의 위기'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측할 만하다. 양적 학문과 질적 학문 간의 비대칭성에 대해 인문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위 '위기 극복'이 가능한가? 이 글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인문성과 문본성은 편제적이다>라는 논제이다. 인문학(humanities)이 추구하는 인문성(humanity)과 인문학이 해석해 온 문본(文本, text)에 대한 개념들을 분석하여, 어떻게 이들을 확장할 수 있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과학의 성공과 인간 경험의 양적 이해를 환영하고 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인문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자유의 논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양적 접근이 드리울 수도 있는 그림자를 규정하고 보다 자유로운 세계의 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제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현대성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반문하고자 한다.

II. 편재적 인문성

1. 인문편재성: 왜 묻는가?

인문성(人文性)이란 무엇일까? ‘인문’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은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의 속성을 나타내는 ‘인문성’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당혹스럽다.² 이 단어와 가까운 영어 단어는 ‘humanity’이다. 이것은 인문성이 인간성의 최대화를 지향하거나 나타낸다는 속성을 나타내고, 이 속성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인문성’은 대응되는 영어단어보다 더 풍부한 개념을 갖는다. 한국어의 의미에 기초해서, 〈인문성이란 언어와 독립된 초월적인 실체로서의 인간성이 아니라, 언어라는 인간 공동체의 표현방식의 내적 질서로부터 어우러지는 관계로서의 인간성을 나타내는 속성이다〉로 가설화 해볼 수 있다. 영자(英字)의 전통이 지고 왔던 실체적 부담을 언어적 ‘문’(文)자로서 간단히 벗어낸다.

인문성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인간 언어 중에서 인문성을 드러내는 표현들 중 물음의 형식에 주목할 수 있다. 2살 난 아기가 그의 엄마에게 “이게 뭐야?”라고 물을 때 엄마는 “강아지야!”라고 대답하고, 아기는 또 “강아지는 뭐야?”라고 묻고 엄마는 계속해서 대답하고 아기는 계속해서 묻는다. 아기의 물음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물음 전과 물음 후의 아기

2. 이 글은 인문학(人文學)과 인문성(人文性)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명료화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적으로 그러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력에 의존한다. 영자로는 그러한 개념성의 실득력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고, 나아가서 이 글이 영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도 언어의 차이 때문에 한계를 가질 것이다. ‘人文’은 〈인간의 무늬(紋)〉를 나타낸다는 해석을 지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김상환 교수는 그러한 해석의 전거를 『주역』에서 제시한다(304). 〈인간의 무늬〉라는 관점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해석과 〈인간 공동체의 인간이해의 진화과정에서 그려진 인간 모습〉이라는 해석을 허용한다. 후자의 진화론적 관점은 물론 전자의 실체론적 관점도 시대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문’(文)에 대한 어떤 해석에서도, 〈인문성이란 언어를 통하여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성격이다〉라는 통찰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의 상태는 어떻게 다른가? 물음 전의 아기의 머릿속, 또는 그의 개념 공간 안에는 ‘이게’라고 표시된 사물의 의미가 없었고 따라서 그 개념 공간 안의 다른 대상과 관계가 없었지만, 물음 후에는 엄마의 대답을 통해 ‘이게’라고 표시된 사물이 그 개념 공간 안의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갖게 되면서 의미를 갖게 되고 아이에게 하나의 대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물음 전에는 ‘이게’라고 표시된 사물이 불특정한 X에 불과했지만, 물음 후에는 구체적 대상으로 아기의 개념 세계에 의미체로 등장하게 된다. 아이는 물음 전보다 물음 후에 그만큼 확장된 세계로 진입하게 되고 그만큼 자유로워진다.

아기의 물음은 대상이나 개념의 본질은 무엇인가($\tau\iota\ \acute{\epsilon}\sigma\tau\iota$)라고 물어 온 철학의 전통과 닮아 있다(정대현, 『이것을 저렇게도』 17-19). 아기는 ‘개념’이나 ‘본질’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서도 놀랍게도 물음을 통해 자신의 개념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기의 언어 사용방식은 인간의 <모든 일상 언어 사용방식>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물음은 개념세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인간연대를 확장한다.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아는 사람끼리도 인사하지만, 모르는 사람과도 인사한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향해 인사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 나는 그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인사를 하는 경우 나의 인사 행위는 그와 내가 연결되었다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언어는 인간 공동체가 구성한 언어의 내적 질서로부터 서로 어우러지는 관계성으로서의 인간성을 나타낸다.³

3. 편제적 인문성을 언어 사용에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 심포지움 토론에서 김애령 교수는 언어 사용의 가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신상규 교수는 편제적 인문성과 언어 사용성이 독립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순환적이라고 한다. 두 비판은 개연적 무게를 갖는다. 그러나 인간은 일상 언어라는 언어 행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행성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면서 언어 소통을 수행한다. 그 평가의 기준들 중의 하나는 <나는 틀릴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보다는 <나는 틀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을 대화 상대자로 선호한다는

“이게 얼마지요?”와 “좀 깎아 주세요!” 같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흥정하는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가? 언뜻 흥정은 파는 이와 사는 이가 상업적 이해관계의 적정선에 도달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구조, 경제 질서, 언어 소통 체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흥정이란 보다 깊은 사회적, 공동체적 연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시민들은 모두 노동 분업에 따라 한 분야에서는 생산자이지만 나머지 다른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되므로, 욕구의 해소 절차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게 되는 혼한 흥정은 대개의 경우 공동체의 내적 질서로부터 우리나라의 관계성으로서의 인간성 표출이므로 아름다워 보인다. 흥정은 상생의 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체적〉 물음들이 의미 세계나 자유를 확장하고 인간 연대라는 인간성에 이르게 한다면, 그렇다면 물음이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개인이 묻는 구체적 물음은 그 개인의 인문성의 발현이지만, 공동체의 성격이나 발전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물음이란 주어진 것을 주어진 대로 수용하지 않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나 의미 또는 그 자체의 본질이나 구체적 속성에 대한 반성이나 의문에서 발단된다. 강아지는 주어진 것을 주어진 대로 수용하지만 아기는 주어진 사물에 대해 탐구를 하는 것이다. 주어진 것을 주어진 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어진 대로〉에 대한 방식이나 체계에 대해 다른 방식이나 대안적 체계를 꿈꾸는 것이다. 물음은 이미 주어진 체계로부터의 이탈이나 초월을 감행하는 행위이다. 모든 체계는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속성을 유지하는 내재적 체계이지만, 물음은 체계 비판적이 된다. 독재 권력은 체계 내향적이기를 원하고 언론 자유는 체계 외향적이고자 한다.

자유란 체계 내에서 체계 밖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경험이다. 소위 ‘주어

것이다. 이러한 선호성은 가치 전체적이고 순환적이지만 그러한 선호성 자체가 바로 언어 행성을 구성하는 규칙이라고 믿는다.

진 체계는 자연적일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다. 모두 물음의 대상들이다. 자연적인 경우, 물음들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명료하게 한다. 인위적인 경우, 선한 의도로 구성했을 때에도, 법률적 장치나 제도적 구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 특히 약자에게 억압적이거나 제약적인 경향성을 갖는다. 그러한 〈선한〉 체계에 대해서도 선한 의도를 주어진 대로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불러올 수 있는 제약성에 대해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물음은 자유의 씨앗이 된다. 자유란 체계 내의 현실적 부정성에 대한 조건으로부터 초월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꿈의 실현이다. 자유의 이러한 본질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나 〈강제 없는 자유〉의 핵심을 드러내어, 인간성의 조건을 명료하게 해 준다.

모든 물음은 자유의 씨앗이다. 그리고 물음들은 노동의 분업이나 물음의 효율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다. 그 중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물음들도 있다.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의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물음이 제기될 때 우리는 물음 전보다 물음 후에 그만큼 확장된 세계로 진입하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그리고 자연세계에서 인간의 자리를 더 선명하게 파악하게 된다. 인간은 원자적 존재 같지만, 인간은 부모에게서 잉태될 때 벌써 연대된 수정란에서 시작하고 태어나 자라면서 사회적 존재가 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자연과 독립된 실체로 보이지만, 몸과 마음이 자연으로부터 진화되어 온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존재인 것이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물음에서 시작하여 그 과제를 언어로 추구하는 한 자유로운 세계의 추구하고 이 세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의 물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 인문성 개념

앞에서 논의한 것을 요약해 보자면, 모든 구체적 물음은 언어를 통한 인

간성 조명에 닿아 있고, 이러한 사실은 물음의 일반론을 가능하게 하여 반성, 비판, 초월, 가능성, 대안, 자유의 개념들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인문성에 대한 가설적 규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인문성이란 인간을 정적으로 체계화하는 경향에 대하여, 가능성의 언어로써 인간 연대성과 세계 통합성을 확장하면서 자신과 모두를 온전하게⁴ 만들려는 동적인 의지, 그 부분적 의지 또는 그 결과이다>.⁵ 인문성은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그리고 인간이 활동하는 양식에 편재적으로 들어 있다. 인문성은 어떤 것에 첨가하여 인문적 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고 흥정을 할 때, 바로 그 인사나 흥정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인문성은 살인 같은 발생적 속성이 아니라 ‘느리게 걷는다’에서 ‘느리게’가 걷는 행위를 수식하는 것 같은 부사적 속성이다.

인문성의 존재론적 특징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속성들 중에는 사물의 크기, 무게 같은 일차적 속성도 있고, 사물의 색깔, 향기, 빛 같은 이차적 속성들도 있다고 한다면 인문성은 어떤 종류의 속성인가가 문제된다. 인문성은 억압적이거나 권태로운 사실의 감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 속성은 기부(寄附) 같은 사건적 성질

4. ‘온전’이라는 표현은 애매모호하다. 이 단어를 편의적으로 이해하는 한 방식은 <예술작품> 같은 온전성이라 할 수 있다. ‘예술작품’도 지시 설명의 과제가 있지만 박이문(Ynhui Park)의 조명이 도움이 될 것이다(『예술철학』 101-09, 162-66; 『예술과 생태』 42-45; Reality 268). 그는 예술작품을 “가능한 유일 세계”로 규정한다. 이 규정에서 “가능”이란 현실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공간의 성질을 지칭하는 개연적 양상을 나타낸다. “유일”이라는 표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독자적 개성을 갖는 것처럼, 예술가의 작품이 갖는 창조적, 독립적, 자율적, 자체 구성적 성질을 지시한다. 그리고 “세계”라는 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은 <주제>로서의 아니라 <세계>로서의 해석의 대상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5. 송기정 교수는 심포지움 토론에서 인문성 개념에 <재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유쾌하다’가 감각적, 신체적 즐거움을 지시한다면, ‘재미있다’는 지성적, 인격적 관계의 내용에서 오는 즐거움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지를 만나 활기차게 대화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처럼, 반성, 비판, 초월, 가능성, 대안, 자아 확장, 자유의 체험에서 오는 경험은 재미 경험의 원초적 모형일 것으로 생각한다. ‘재미’는 인문성의 개념적 내용 조건에 수반되는 부사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아니고, 커피를 마실까 홍차를 마실까에서의 선택(選擇)같은 행위적 성질이 아니다. 인문성은 친절(親切)같은 과정적 성질이고, “김씨는 시간이 갈수록 이씨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에서처럼 지성적 성질이다. “박씨는 인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특정한 행위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에서 인문성의 의지를 나타내고 유지하기 때문이다.⁶

인문성의 논리적 특징 하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인문성이란 <의미론적 상승>(semantic ascent)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물건 값의 흥정 행위를 살펴보자. 구입자가 상품 가격표의 정보를 수용하면 구입자는 판매자의 판매 체계를 긍정하는 것이고 판매 체계와 구입자의 재정 체계는 양립적이어서 구입자는 아무런 흥정 없이 구매행위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구입자가 그 가격표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 또는 상상하면 그것은 구입자가 판매자의 판매 체계의 한 부분에 이의를 품는 행위이다. 자신의 재정 체계가 어울리는 또는 허용하는 가격들을 제안하여 흥정에 들어간다. 구입자가 “가격이 비싸다”고 상상할 때 그는 판매자의 판매 체계를 벗어난다. 하나의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초월하는 것이고, 두 체계가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 한에서 이 초월을 의미론적 상승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상상은 언어적이고 따라서 의미론적 상승의 행위이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아버지는 “밤 11시 이전 귀가 규칙”을 강요하고 딸은 그 규칙에 승복하지 않을 때, 혼히는 <규칙 강요>와 <규칙 불복>이라는 사건 행위들이 대상적으로 나타나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현명한 딸이라면 <규칙 강요 체계>와 <규칙 불복 체계>로부터 의미론적으로 상승하여 <규칙 강요>와 <규칙 불복>의 사건 행위를 전제하는 체계들의 문법을 상위적으

6. 김경희 교수는 심포지움 토론에서 인문성의 편제적 논제가 표면적으로 공간적 범주로 보이지만 그러나 양적인 요소와 질적인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간적 범주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범주의 양립성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제는 <인문성은 언어가 사용되는 모든 문맥에서 구현 된다>라는 의미에서 편제성이라면 언어 사용 자체가 양적인 요소와 질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간/시간의 범주”보다는 “문맥/사용의 국면”이 보다 편한 성격 규정일 것으로 생각한다.

로 만나게 할 수 있다. 각 체계들과 거리를 두면서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다. 흥정도 구입자와 판매자의 인격적, 대상적 차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체계와 판매 체계의 언어적, 상위적 차이로 바라보는 것이다. 서로의 체계가 어떤 전제들, 규칙들, 가치들,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측하거나 이해했을 때 보다 열린 대화에 들어 갈 수 있다.⁷

3. 개입적 반인문성

편재적 인문성 논제에 대해 심각한 의문제기가 가능하다. 인문성에 반대되는 특성인 반인문성이 역사와 사회에 여러 차원에서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역사상의 수많은 절대적 제왕들의 횡포, 많은 현대 국가들의 독재자들, 사회 각 층에서 휘두르는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편재적 인문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그러한 권력자만 반인문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속에 살아가면서 그 사회질서에 내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은 반인문성을 내면화하여 때에 따라, 또는 의도하지 않고도 반

7. “의미론적 상승”(semantic ascent)이라는 개념은 윌러드 반 오르만 콰인(Willard Van Orman Quine, 270-76)이 구성한 것을 인문적 문맥으로 차입한 것이다(정대현, 『이것을 저렇게도』 220-22). “타스마니아에는 일각수들이 있다”라는 존재 사실적 문장은 “타스마니아에는 ‘일각수’라는 술어가 참인 생물들이 있다”라는 언어 문법적 문장으로 해석된다. 불분명한 대상의 이야기가 보다 분명한 단어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이다. 물리학의 빛, 속도, 중력, 입자 같은 대상들뿐만 아니라 점, 직선, 마일, 수, 속성, 명제, 진리, 사실 같은 대상들의 이야기도 언어의 이야기로 전환될 때 더 명료화되고 논리적 추구의 절차가 선명해진다.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 “존재란 양화체계의 문장을 참이게 하는 변항의 값”이라고 생각한다. 인문적 문맥에서 “의미론적 상승” 개념은 유용하다. 인문성을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보다 깊은 자유의 능력 또는 실현이라 보고 싶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조건은 반인문성의 침입이나 지배에 노출되어 있다. 반인문성이란 인간을 향한 폭력, 억압, 대상화, 차이의 사물성 뿐만 아니라 세계 환경의 파편성, 비연결성으로 인한 인간 존재의 왜소화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반인문성의 문맥으로부터 의미론적 상승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사물화” 조건으로부터 보다 나은 “언어화” 질서를 꿈꾼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론적 상승은 인간 연대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고 세계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다. “의미론적 상승”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시도를 비-콰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콰인적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인문적일 수 있다. 대니얼 카네만(Daniel Kahneman)이 논의하는 대로, 인간은 느린 판단을 할 때는 숙고적이고 배려적이지만 빠른 판단을 할 때는 자기 보존적, 고정 관념적, 이기적, 편의적이기 쉽다(135-58). 인간은 느린 판단만 하면서 살 수 없고, 빠른 속도의 세상을 살면서 빠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경우 흔히 비합리적이고 반인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내가 인문성을 추구할지라도 내 안의 반인문성이 수시로 드러난다. 빠른 판단을 하는 경우, 의식하지도 못한 채 내 안에 자리한 이기주의, 연고주의, 외모주의, 학력주의의 경향성에 빠질 수 있다. 빠른 판단을 하여야 하는 인간은 속도가 강요하는 정보처리의 편의성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쉽게 반인문성에 빠지는 것이다(정대현, 「지칭의 자연화」 42-47).

이렇게 개입되는 반인문성에 대해 편재적 인문성 논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양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인문성과 반인문성은 두 개념이 시사하는대로, 반대 방향의 가치를 지향한다.

인문성이 꿈, 날음, 비약, 가능성, 해방, 미지 개척, 소통 같은 단어들로 특징지어지는 자유 확장의 가치라면, 반인문성은 비인간화, 억압, 부자유, 권태, 고독, 소외, 침묵 같은 어휘들로 규정되는 자유 축소 가치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로 올 수록 사회는 반인문성보다 인문성을 상대적으로 더 추구하고 있다. 인문성 추구는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의 문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현대로 올수록 담론의 투명한 문법이 사회에 안착하고 확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인문성은 바로 담론 언어의 문법을 그 구성적 요소로 하고 있다.

Ⅲ. 편재적 문본성

1. 문본과 문맥

인문성은 앞에서 본대로 물음과 대답의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인문성이 편재적이라면, 언어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무엇이든 예시가 될 수 있다. 인문성은 내가 “다음 화요일 점심 때 만납시다”라고 제안하거나 약속할 때도, 그리고 내가 결혼식 주례를 맡아 “최근과 정양은 이제 부부입니다”라고 선언할 때도 나타난다. 이때의 약속이나 선언은 제도적 인문성이라 할 수 있다. 제도에 기대어 인문성을 현시하는 것이다. 만나지는 약속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인간 접근의 촉매제이고, 두 사람을 부부라고 선언하는 것은 사실 기술이 아닌, 사실 구성이라는 점에서 인문성의 예시가 된다. 앞에서 논의했던 시장에서의 흥정 행위도 언어활동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인문성이라 할 수 있다. 언어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모두 인문성이 나타난다는 가설도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 제도적 규칙에 의존한다. 그러나 인문성은 문자적 언어에만 매일 필요가 없다. 인문성은 탈문자 언어적일 수도 있다.

인문성이 탈문자 언어적일 수 있다는 가설은 적극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언어 의미는 지칭론적이기 보다는 사용론적이듯이 문본(text)과 문맥(context)의 구분도 이 점을 시사한다. 문자적 문본의 이해는 문맥을 기초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이상적 이론, 이상적 언어는 화자에 상관없이, 문맥과 독립하여 문장들의 진리치를 확정할 수 있다고 상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더 이상 현대 의미론에서 유지되기 어렵다. 모든 일상 언어는 중국어나 한국어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문맥이 문자적 문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문법의 일부를 이룬다. 가령, ‘지도자라는 문자 문본의 의미는 지칭체가 고정되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는 좋은 사람을 뜻하기도 나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⁸

8. 문본과 문맥을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관점은 “언어 표현의 의미란 그 표현의 사용방식이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표현의 사용방식”이라는 핵심적 개념은 한국어의 맞음이라는 개념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정대현, 『맞음의 철학』 420-39). 맞음이라는 개념도 다른 모든 가치처럼 다음과 같은 진화적 시간성의 단계를 갖는 것으로 가설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탈문자언어

문본은 편제적이라는 가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필자는 몸짓, 예술, 그리고 영상이 일종의 언어라는 관점을 옹호한다. 먼저, 몸짓은 언어이다, 신체 언어인 것이다. 몸짓이 공동체적 의미 단위를 가지기 때문이다(정대현, 『심성내용의 신체성』 434-39). 생각과 말은 다소 자유분방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몸짓의 행위는 안정적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진다. 공동체가 질서 안정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비네바위의 눈물”이라는 전설에는 “소녀의 머리에 비너를 콧아 주고 싶다”라는 기술로 나타나는 몸짓이 있다. 이 몸짓의 의미는 남자 주인공의 의지보다는 그가 속하는 사회의 그물망에 의하여 구조화된 것이고, 남자는 사회의 그물망 구조에 따라 그의 소망을 그 몸짓에 담은 것이다. 이 사회의 생활양식을 모르는 사람은 이 몸짓을 〈결혼〉이 아니라 〈온정〉의 함축을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할지도 모른다.⁹

(i) 모든 동물은 좋음과 싫음의 기재를 가진다. 생존에 유익한 성질은 좋아하고 불리한 성질은 싫어한다. (ii) 동물들은 초기 단계에는 재인(再認)의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자연종인 개가 현재의 주인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친 재인 능력이다. 이 개의 재인은 단순히 진리론적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총체적 문맥에 어울리는 상황의 인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초기에 주인을 모르던 개가 반복하여 주인과 만나면서 친숙을 통해 재인 능력이 발생했을 것이고, 친숙은 생존에 유익한 성질의 좋음과 연관되었을 것이다. 자연종 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론적으로 맞음의 유무의 인식적 장치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iii) 인간은 습득된 맞음의 인식 장치에 의하여 맞음의 습관을 구성한다. 생존에 맞는 습관을 구성하는 것이다. 습관은 편리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뿐 아니라 기계적이다. (iv) 습관이 구성되었을 때 특정한 맞음 관계는 하나의 가치가 된다. 습관은 좋음과 싫음의 구조를 수반하고 이 구조를 유형화한다. (v) 맞음의 가치로부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인간 자연종은 맞음의 가치를 공유하는 무리끼리 모이면서 공동체를 이룬다. (vi) 이 공동체의 생활양식은 의사소통의 노력을 포함하고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맞음 개념은 문본이 편제적이라는 가설이 태동될 수 있는 근거를 시사하고, 문본과 문맥이라는 구분도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편의적이라는 것을 보인다.

9. 언어로서의 몸짓 개념은 보다 일반화하여 언어로서의 사태(gates of affairs) 개념(정대현, 「지칭의 자연화」 39-40)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태가 정보적이다”라는 명제는 수

예술도 언어이다. 예술의 여러 분야 중에서 회화 미술에 주목하자. 그러면 문자적 사유와 회화적 사유는 비교할 만하다. 문자는 단자적 구별성을 가진 논리의 언어일 수 있고 이성적 사유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회화는 조밀한 지속성으로 기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보일 수 있다. 어떤 것이 기호라면 기호로서의 독립성과 변별성을 유지하여야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화 공간의 부분들은 기호로서의 안정성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 의미부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사회적 제도로서의 의미 소통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회화는 이성적 사유의 매체 보다는 정서의 매체로 더 적합하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문자언어와 회화 언어의 단자적 조밀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단절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속성의 연결지점은 지칭 개념을 통해 보여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상화의 언어 지칭성에 주목하자.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는 배우 박용식 씨나 배우 박종설 씨와 더 닮아 있다고 하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초상화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초상화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가? 화가가 그 초상화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칭하여 그렸기 때문이다. 초상화는 작품과 대상과의 <유사성>보다는 화가의 <지칭성>에 의해 대상을 표시하는 것이다(군맨 133-59, 152).¹⁰

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자석봉이 쇳가루를 끌어 모으는 흡인력을 갖는 상황에서, 물리주의(physicalism)는 자석봉이나 쇳가루에 모두 수동적 사물성의 자리만을 부여할 뿐이지만, 성향론(dispositionalism)은 양자에게 모두 능동력을 부여하고 그 결과로 흡인력(permeability)의 상호성에 주목하게 한다. 흡인력이 표출되는 것은 자석봉과 쇳가루의 성질들에 상호적으로 작동하는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속성과 힘은 하나이고, 이들은 유기적이고, 통전적(integrational)이고, 정보적이다. 자석봉과 쇳가루가 서로에 대해 정보적으로 교섭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전적일 수 있다. 정보가 언어적이라면, 그러면 사태는 언어적이다.

10. 또한 <무용도 언어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셉 마콜리스(Joseph Margolis)는 수잔 랑거(Susan Langer)의 “무용은 언어이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박을 한다(376-89). 그러나 마콜리스의 논변은 반박될 수 있다(정대현, 「그라함 나잇 저니의 언어성」 95-115).

3. 영화언어

탈문자 언어들 중에서 영화는 “비문자적인 것은 언어가 아니다”라는 반언어론이 치열한 경우이다(정대현, 「영화 보기의 국면성」; 염인선. 영화란 무엇인가? 말콤 터비(Malcom Turvey)는 “영화 관람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라는 말로 영화의 역설을 제시한다(431). 이와 관련하여 영화보기를 착각, 투명, 상상, 재인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리처드 알렌(Richard Allen)의 묘사(depict)론을 취하고자 한다: 우리가 영화를 바라볼(look) 때 화면의 색소들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우리가 “본다”(see)고 하는 내용은 화면 색소들이 아니고 영화가 묘사하는 것이다(Allen 76-94; Turvey 431-57).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은 사물자체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사물의 국면이다. 우리가 영화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픽션(fiction)의 지칭체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다. 영화의 재현을 픽션의 지칭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알렌의 묘사론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국면적(aspectual) 봄의 개념을 영화 보기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구름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보기도 하고, 한 초상화 얼굴에서 공포의 표정을 보며, 오늘에야 막내가 엄마를 닮았다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가 정대현을 보는 경우에도 정대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작은 키의 정대현이나 흰 머리의 정대현이나 특이한 말투의 정대현을 본다. 국면적 봄은 대상의 물리적 성질들의 나열로써만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면은 직접적으로 재현될 수 없거나, 물리적 성질로 지적될 수 없기도 하다. 국면은 불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이며, 추상적일 수 있다. 영화를 본다는 것은 이러한 국면적 봄에서 지각하는 것과 같은, 묘사된 것을 보는 것이다.

영화 언어론은 앞에서 논의한 회화의 언어성이나 사태의 언어성에 보조

적 전제들을 첨가하며 도출될 수 있다.¹¹ 그러한 보조 전제들의 후보는 〈영화 보기는 영화 쓰기에 의존 한다〉, 〈영화란 이야기의 주요 이미지들을 몇 개의 만화 컷으로 만든 다음 그 만화 컷들을 연결시킨 것이다〉, 〈영화는 스토리가 있는 사진들의 집합〉같은 레브 마노비치(Lev Manovich), 크리스 마르케(Chris Marker) 등에 의해 관찰되었다.¹² 여기에 인간 지각과 영화 지각에 대한 현상학적 지각 비교론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이종관 182-209).

IV. 인문학의 문본성

1. 고전: 인문성 표시체

인문성이 실현되는 사건이나 계기들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인문성의 전형적인 표시체를 선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고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고전이란 무엇인가? 대학의 교양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이 물음을 제기해 왔고(이성원 127-32), 이는 계속 논의돼야 한다. 국어사전은 ‘고전’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높이 평가된 저술 또는 작품”이라고 적고 있다(“Gojeon” 212). 이러한 사전 풀이는 〈인문성의 예시로서의 문본〉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고전의 의미 또는 고전의 필요에 대한 일중

11. 강성용 교수는 심포지움 토론에서 이러한 언어 개념의 확장은 한편으로 언어 연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 분야별 언어 의미론을 임시방편화해야 할 것으로 염려한다. 이 지적은 진리의미론적으로 구성된 언어론에게는 치명적인 비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맞춤 의미론으로 구성된 언어론은 한편으로 그 안에 진리 계산적 맞춤을 허용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연산적 이론 작업이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 맞춤의 의미 구성이 문자적 표현들만이 아니라 비문자적 표현들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 의미론의 일관적 적용을 볼 수 있게 된다.

12. 마노비치가 서울에서의 한 좌담에서 발언한 내용이다(“Workshop on Digital Culture.” Korea Culture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December 1999).

의 귀류논법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사전은 고전의 필요충분조건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오랫동안>, <널리 읽히고>, <높이 평가된> 것이다. 고전이 되는 데 있어서, 각 조건이 필요하고 합하여 충분하다. 또한 사전은 고전을 단일한 인류 공동체의 문맥 속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 조건이 각각 그 문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전이 전제하는 인류 공동체의 발전과 지속에 고전이 기여해 왔음을 나타낸다. 세 가지 조건이 그러한 역할 이외의 다른 역할을 내포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역할은 바로 <인문성이란 인간을 정적으로 체계화하는 경향에 대하여, 가능성의 언어로서 인간 연대성과 세계 통합성을 확장하면서 자신과 모두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동적인 의지, 그 부분적 의지 또는 그 결과이다>라는 인문성의 규정과 <인문성의 예시로서의 문본>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인류역사에 고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정>해 보자. 그런 경우 인류 공동체는 어떤 의미의 공동체가 되었을까? 아마도 인류 공동체는 자연종으로서의 공동체, 즉 자연종으로서 단지 번식하고 번창하는 공동체에 그쳤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 세계를 벗어나 문화 세계를 이룩하는 가치 의미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인류 공동체는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지난 100년, 500년, 2500년, 5000년 동안 상당히 높은 인문성의 조건을 구성해 왔다. 그렇다면 위의 <가정>은 거짓이다. 고전은 인류 역사에서 필요했고 의미 있었으며 지금과 같은 문화시대의 근거이고, 인류 공동체를 인문성이라는 가치로 엮어 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전’에 대한 사전 풀이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적 접근>을 할 뿐, 정작 고전의 내용에 관한 <질적 접근>은 생략하고 있다. 고전은 무엇을 다루는가? 고전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경험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고전 내용의 조건을 인간성, 체계성, 지식, 물음의 네 가지로 가설화하고자 한다. 네 가지 조건은 앞의 경험적 조건처럼 판별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각 조건은 0과 1 사이에서 정도의 대소를 허용하므로, 각 조건은 고전이 되는 데 필요하지도 않고 합하여 충분하다고 할 수

도 없다. 이것들은 단지 고전의 한 요소가 될 뿐이다. 먼저 인간성 조건을 보자. 많은 고전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오이디푸스』 같은 비극도 있고 『돈키호테』 같은 희극도 있다. 많은 고전 작품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문맥에서 빛어질 수 있는 인간조건을 보여줌으로써 인문성 조명에 기여한다. 그러한 인간 조건의 가능성 앞에서 독자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하며, 인생을 반성하기도 하고 미래를 전망하기도 한다. 많은 고전은 현실 이야기가 아니고 가능성의 이야기인데도 인격적 소통을 구성해 준다. 인간의 의미 세계를 확장시켜 주어 자유의 일단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고전은 체계성이라는 조건을 갖는다. 『순수이성비판』 같은 철학 책이나 『삼국유사』 같은 역사서뿐만 아니라 『님의 침묵』 같은 시집도 체계성을 갖는다. 이들은 각기 독특한 관점의 세계 해석을 담고 있다. 단일한 체계성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독자는 그 체계를 수용하면서 그 세계의 시민이 되고 그 체계가 허용하는 자유를 체험한다. 그러나 독자가 『정신현상학』, 『삼국사기』, 『화사집』을 읽게 되면, 또 다른 독립된 체계를 보게 된다. 독자들은 동일한 분야나 주제에 대해서 다원적 체계들의 관점에 열리게 되고 <다름>이 다른 관점의 이야기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고전 읽기는 종교 경전을 배타적으로 읽는 방식과 대조된다. 배타적 경전 읽기는 다른 종교 경전에 대한 다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전에 대한 다른 방식의 읽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타적 경전 읽기>는 종교 경전 읽기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가끔 고전 읽기에서도 볼 수 있다. 자신이 수용한 고전 체계의 내부 규칙을 ‘순수한다’는 명목으로 그 규칙을 체계 밖까지 연장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연장이 그 체계의 규칙 준수의 진정성이라 믿는 까닭이다. 그러나 진정한 고전 읽기의 방식은 체계 내부의 진정성을 그 체계 내부에 한정하여 수용하고, 다른 체계가 가진 진정성 역시 존중해 준다.

거의 모든 고전은 지식의 요소를 갖는다. 지식은 정당화된 참 믿음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여기에 신뢰, 자연화, 또는 인과성 같은 조건이 첨가되기도 한다(김기현 282-83). 그러나 고전의 지식적 요소를 논의하는 이 공간에서는 지식을 진리 조건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느슨한 지식개념으로 논의하려 한다. 지식을 진리 조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지식의 양을 진리의 양과 연결시키게 되지만, 느슨한 지식 개념에서는 지식의 양을 진리의 양이 아니라 해석의 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인석 25-30). 과학이나 인간 경험의 모든 주제를 진리 조건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주제는 진리가 아니라 해석을 통해 조명되고 이해된다. 어떤 주제를 논의할 때 한 가지 해석만 제기된다면 많은 해석이 제기될 때 보다 빈약한 논의가 된다. 독자들은 고전을 읽으면서 진리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의 방식들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토론회의 결론보다는 토론회의 열띤 토론 자체에 더 감동을 받고 기쁨을 체험하듯이 많은 고전 읽기는 그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세계 경험이 더 풍부해지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고전은 물음의 요소를 갖고, 그 때문에 현재성을 갖는다. 어떤 고전도 하나의 물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고전이 시작하는 물음을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전이 하나의 체계이고, 하나의 이야기라면, 왜 그 체계인지, 왜 그 이야기인지에 대한 물음이 고전의 전체 구조 속에서 미루어 짐작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전의 내용들은 깊은 심층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물음의 연속적인 흐름이다. 독자들이 고전에서 받는 감동은 그러한 내면화된 물음들이 오늘의 이 현실에도 적용되며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독자는 고전을 읽으면서 그 물음의 여운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된다. 고전을 다 읽고 책을 덮으며 독자들은 총체적인 인생을 조감하고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게 된다. 이러한 물음은 두 살 난 아기가 물음으로 인문성에 도달하는 것 같은 고전의 환희를 선사한다.

2. 인문성과 인문학

앞에서 〈인문성이란 인간을 정적으로 체계화하는 경향에 대하여, 가능성의 언어로서 인간 연대성과 세계 통합성을 확장하면서 자신과 모두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동적인 의지, 그 부분적 의지 또는 그 결과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인문학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인문학은 인문성에 대한 체계적 성찰 또는 그 결과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양적 접근이라 한다면, 인문학은 이에 대조하여 양적 접근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 경험에 대한 질적 접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양적 접근은 여덟 개로 셀 수 있는 태양계의惑星들의 개별자를 전제하는 것과 같다면, 질적 접근은 “김씨와 이씨의 우정은 알로에 향기를 낸다”고 박씨가 말할 때처럼 화자의 직접적 경험의 문맥적 주관성을 전제한다. 무리수(無理數)가 셀 수 없지만 무리수 현상이 실재하는 것처럼, 직접적 경험의 문맥적 주관성의 대상은 셀 수 없지만 인간에게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삶의 공간에 실재한다.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양적으로 접근하여 성공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심각한 문제들은 질적으로만 접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외, 자살, 출산율 감소, 남북분단체계, 세월호 사건 등은 단순히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질적인 문제이다.

인문성과 인문학을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편재적 인문성과 편재적 문본성 가설을 도입하면 추구해야 할 인문학의 성격이 보다 선명해진다. 이러한 인문성에 기초한 인문학은 그 편재적 성격에 따라 총체적 인문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제도적 인문학과의 관계에서 총체적 인문학은 보다 명료해진다. 일반적으로, 제도적 인문학은 문학, 사학, 철학, 언어학, 예술, 종교학의 학문들로 간주되어 왔다. 소위 ‘인문대학’에 속하는 학문들의 체계이다. 인문대학에 속하는 학문들은 인간 지성의 발전사에서 지성활동의 분업의 문법에 따른 특수한 주제

의 영역을 갖는다. 문사철 언예종이라는 특수한 주제의 영역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은 ‘영역별 인문학’이라 호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총체적 인문학의 논제에 개연성이 있다면 이것은 영역별 인문학에 추가해서 ‘탈영역 인문학’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영역별 인문학과 탈영역 인문학은 <인문학이란 인간의 문자나 비문자적 표현을 통해 자연적, 사회적 질서의 제약으로부터 인문성의 가능경험적 표현을 모색하는 체계적 노력이다>라는 인문학 개념을 수용하여(정대현 외 22), 양립적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영역별 인문학은 기존의 영역들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더 천착할 수 있고, 탈영역 인문학은 새로워지고 있는 인간조건의 문화현상에 대한 성찰에 전문성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¹³

3. 영역별 인문학과 탈영역 인문학

편제적 인문성은 문자적 문본 이외의 경우에도 예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고전적 문자 문본만이 아니라 탈문자 문본 경우의 인문성 예시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문성의 탈문자 문본적 예시로 예술 작품들, 더 나아가 퍼포먼스 미술을 들 수 있다. 퍼포먼스 미술은 서양화와 동양화의 벽을 허물고, 캔버스 밖으로 나가, 조각과 융합되고, 작품 행위와 작품 결과의 구분을 해소하며, 행위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경우이다. “미술가는 가지만 그의 작품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격언과는 달리, “나 자신이 살아 있는 예술 작품이다”라는 선언이다. 구체적 보편자로서의 사물적 작품이 신체적 의미체로서의 인격적 삶으로 대치된다.

탈문자 문본적 인문성은 이론과 실천에 대한 전통적 구분이 시대 제한

13. 김애령 교수는 심포지움 토론에서 문자적 문본의 인문성과 탈문자적 문본의 인문성은 다른 문법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이 지적은 중요하다. 문학, 사학, 철학이 다른 인문성의 문법을 갖는 것처럼, 문본이 문자적인가 탈문자적인가에 따라 요구되는 문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주제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적인 개념이었음을 보게 해준다. 전통적으로 이론은 플라톤의 이데아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또는 칸트의 선형철학처럼, 세계를 해석하는 이상적이고 유일한 진리 체계로 간주되었고, 인간의 일상 언어들은 모두 그러한 이상언어에 맞추어 가야하는 불완전한 언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세기의 <언어적 전회>는 생각의 단위를 바꾸어, 필연성을 수반한다고 믿었던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참/거짓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장을 내세웠다. 문장은 언어체계에서 비롯된 요소이고 그 체계의 규칙에 따라 참/거짓을 평가하게 된다. 언어체계는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다원주의는 불가피한 결과였고, 이전 이론도 특정한 과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참 체계는 하나 이상이 되었다. 이론들은 부분적 설명 체계이고, 일상 언어가 총체적인 체계로서 우선적 자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실천이 특정한 이론에 따라 연역되는 행위 지침으로 간주되면서, 학자는 이론을 하고 운동가는 실천을 하는 노동의 분업이 제기되었다. 이론 없이 실천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고, 실천 없이 이론화한다는 것은 공허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의 경계도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의미론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언어 의미는 지칭론적으로 접근되며,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 속성, 진리라고 상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의미론은 지칭론적 의미론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표현과 지시체의 관계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적 관계는 없다는 것이다(정대현, 「그런 사실은 없다」 1-24). 그 대신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에 대한 공동체의 생활양식에서 찾는다. 언어 의미는 공동체의 사용방식이라고 본다. 이론과 실천의 경계는 처음부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관념적이었을 뿐이다. 이론과 실천의 경계가 없다면, 인문성의 문자적 문본성을 존중하면서도 탈문자 문본성도 긍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역적 인문학과 탈영역 인문학의 관계를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이 인문성의 전형적 표시체라고 한다면 기존의 문학, 사학, 철학, 언

어, 종교는 영역적 인문학으로서의 역할과 자리가 존중되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편제적 인문성과 편제적 문본성은 인문학의 범위를 문자적 고전에만 한정하도록 하지 않는다. 인문성과 문본성의 편제성은 기존의 영역별 경계를 넘나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탈문자 문본에의 주목을 요구한다. 소위 '탈영역 인문학'이라는 것의 필요를 보이는 것이다. 기존의 여러 문자적 고전의 영역들이 통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탈문자적 문본이 제기하는 인문성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그리고 다차원적인 영역들을 통합하는 범주들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영상, 소통, 몸, 죽음, 자연, 도시, 신화, 현실, 과학 기술 등의 범주가 당장 생각나지만, 새로운 범주들을 고안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전, 세월호, 남북분단체제, 인간향상, <죽지 않는 인간도 인간인가>와 같은 포스트휴먼적 인간정체성이나 여러 영역을 관통하는 탈영역적 사조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V. 인간 연대성

1. 인문성과 인간론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특정한 인간론에 기반해 있었다. 유학 전통은 교육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문학적으로 구성해 본다면, 그 인문학은 이상적 군자를 지성인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설정했다고 여겨진다. 고대 희랍의 교육도 인문학으로 해석해 낼 수 있다면 자유로운 시민의 덕목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르네상스는 천상적 질서의 안정성이나 폐쇄성에 만족하지 않고 일상에서 이성의 자유로운 빛으로 세계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현대의 지성사회는 어떠한가? 지성 공동체들은 고유한 인간론을 천명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독특한 인간론보다 대세적 풍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대세적 풍조론은 독특한 인간론보다 안전

하고 위험부담에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침은 현대성의 문제나 과제의 진단을 남에게 미루는 것으로, 지성 사회의 책무를 간과하는 것이다. 지성사회는 풍조 선택의 취미사회가 아니라 비판정신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인문학의 유형들은 각기 독자적인 인간론에 따라 인문성을 다르게 추구해왔다. 그것들은 군자적 인문성, 자유시민적 인문성, 자유의 인문성, 대세적 인문성 같은 특성들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인문성들이 글이 추구하는 편재적 인문성, 즉 <인문성이란 인간을 정적으로 체계화하는 경향에 대하여, 가능성의 언어로서 인간 연대성과 세계 통합성을 확장하면서 자신과 모두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동적인 의지, 그 부분적 의지 또는 그 결과이다>라는, ‘통전적’(統全的, integrational)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문성과 대조된다. 군자적 인문성은 인간성을 사회통합의 기능에 한정하고, 자유시민적 인문성은 노예 등 모든 인간을 아우르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가 있다. 자유의 인문성은 안정된 질서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긴 하지만 바로 그 안정성의 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 같고, 대세적 인문성은 생각하는 사람이 주목해야 하는 <지금 여기>의 인간처럼 보인다, 그리고 조건을 대세에 파묻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통전적 인문성은 종래의 인문성들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는가? 전통적 인문성들은 모두 <인문성의 부분>에 주목하는, 부분적 인문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인문성들은 각기 당 시대에 수용되었던 존재론이나 가치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 각 시대적 요청에 대한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반면 통전적 인문성은 존재론과 가치론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이에서 도출되는 체계적 인문성이다. 통전적 존재론과 가치론은 이미 성기성물(成己成物, 나의 이룸과 만물의 이룸은 맞물려 있다) 명제의 체계¹⁴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정대

14. 그러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인간론은 특정한 형이상학, 『중용』

현, 「성(誠)의 지향성」 88; 「성기성물(成己成物): 대안적 가치를 향하여」 112).¹⁵ 그리고 이러한 통전론은 현대사회철학이 주목하는 인간론으로서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간의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¹⁶

2.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주의를 구성하면서 인간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제시한다. “사회에서 인간의 성질은 인간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나오거나 그로 환원되는 성질 이외의 것이 아니다”(848).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그러한 원자적 개인에 기초한 자유주의가 함축하는 “인간은 사회와 독립하여 자족적이다”라는 명제를 비판한다(309). 이러한 자유주의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sola fide)라는 가치를 들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를 이야기하고, 100년 후에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실체를 나의 영혼과 동일시한 역사와 관련이

의 성(誠) 개념에 근거한다. 誠 개념은 다음의 다섯 명제로 구성된다. (i) 사물의 誠은 만물의 道理와 맞물린 그 사물의 道理를 이루는 사물의 수행의 성질이다. (ii) ‘마음’은 복합성의 정도에 따라 정보 처리를 하는 모든 사물의 능력을 표시한다. (iii) 誠은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의 마음 능력이다. (iv) 만일 진화가 생존하는 종의 역사를 나타낸다면 그러면 역사는 종들의 지능이나 정의의 생활양식의 진화를 보인다. (v) 사물의 誠은 사물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일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하는 능력이다.

15. 성기성물 명제의 통전적 형이상학을 수용하고자 할 때 조선조 사회의 통치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에서 오는 정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으로서의 〈유학〉과 가부장적 전체 지배를 추구해 온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를 구분한다. 유학이 통전성의 〈조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잘못과 차이에 대한 원칙(己所不欲 勿施於人; 改過遷善)에 입각한 열린 체계이지만, 유교는 〈조화〉를 이야기할 때 신분제도의 유지(內外法; 七去之惡)를 위해 순종을 요구하는 닫힌 체계이다.
16. 김애령 교수는 심포지움 토론에서 성기성물적 인간론은 인간론의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권력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인간 경험의 영역에서 권력의 범주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인간연대는 결속관계를 1차적 관계에서 구성하고 2차적으로 분업관계에서 조정하는 구조를 갖는다. 어떤 경우에도 2차적 관계가 1차적 관계를 대체할 수 없어야 한다.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은 자유의 형식이다”라고 하여 부자를 옹호하거나(Gaus 209-40),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기회균등의 원칙하에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어야 한다>는 조건 위에서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가난한 자를 옹호하기도 한다(Rawls 5-6). 그러나 두 형태 모두 원자적 개인의 침범할 수 없는 선택권 존중의 우선성을 내세우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존재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채택한다. 개인들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그의 생각, 행동, 습관, 가치는 사회 속에서 육화된(embodied) 존재이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지역 공간, 기억의 공동체, 안면이나 습관의 친숙성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도덕 판단이나 정치 행위는 공동체 성원들이 세계를 보아 온 전통의 프레임이 구성하는 이성 언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평가는 구체적 공동체의 믿음, 실천, 제도로부터 추상되어 공허하게 되고 만다. 그리하여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가치선택의 우위성은 지역중심적(ethnocentrism)이다”라는 믿음에 근거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그 자체의 기준에 따라 정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313). ‘아시아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관유(Lee Kuan Yew)는 지역성, 공동체 기억, 가치의 사회를 근거로 유교적 공동체주의의 구성을 주장한다(재인용. 최영진 121-49).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들은 모두 정치적으로는 개인과 사회를 아우르고 도덕적으로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배타적으로 다루지 않고 절충해서 조정해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또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융합하여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기초해 있는, 또는 출발했던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에 이르면 양자는 갈라지게 된다.

특정한 정책의 선택은 인간을 원자적 존재로 보는지 아니면 사회적 존

재로 보는지의 선택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논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개인과 전체의 이분법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관점에 대한 존재론적 출발점에 침묵하고, 체계적 정당화는 하지 않은 채 개인과 전체의 관계에 대해 선심성의 양시론을 제안하여 관용적 분위기를 지어 낸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론은 개념적으로 미흡하다. 인간의 원자성 전제로부터 최소 수혜자의 배려에 도달하는 것은 선심적이긴 하지만 개념적 필연성을 수반하지 않는다. 인간의 사회성 전제로부터 공동체주의가 도달하는 지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3. 결속 관계와 분업 관계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존 로크(John Locke)나 밀 같은 존재론적 원자주의자도 사회적으로 인간의 관계성을 인정하였다. 관계성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역사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조선조는 양반(兩班)·중인(中人)·상인(常人)·천인(賤人)의 신분을 구별하여 인간의 관계를 제도화 했고, 인도 역사는 카스트(caste)에 따른 신분으로 브라만(승려)·크샤트리아(왕이나 귀족)·바이사(상인)·수드라(일반백성 및 천민)의 4계급을 두고, 수드라에도 속하지 않는 하리잔(불가촉천민)을 차별하였다. 현대사회는 신분에 대한 제도를 실질적(de facto)으로 극복 못 할지라도 적어도 법률적(de jure)으로는 신분제도를 극복하면서, 시민들을 노동 분업이나 수행 능력에 따라 인간관계를 범주화한다. 사회는 학력의 정도, 취업자와 실업자, 사용자와 고용직, 상급직과 하급직 등 인간관계를 세습하거나 평생 제도화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시점에서 인간관계의 자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지닌 원초적 값인 것처럼 해석해 낸다.

성기성물적 인간론은 그와 대비되는 대안적 인간관계론을 제안한다. 인간의 연대 관계를 결속 관계와 분업 관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인간관계

에서 〈분업 관계〉는 개인이 인간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마땅한 자리를 부여 받는 관계이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관계이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관계의 2차적 관계일 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본질적 관계는 아니다. 인간관계의 1차적 관계는 인간으로서의 〈결속 관계〉인 것이다. 개인이 ‘사람임’이라는 본질로서 다른 개인들의 ‘사람임’이라는 같은 본질과 결속되는 연대 관계이다. 결속 관계가 분업 관계보다 우선적인 까닭은 성기성물론의 원칙 중의 하나에서 찾을 수 있다. 한 개인은 다른 개인을 만날 때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난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야 한다. 그 만남은 또 하나의 대상이나 또 하나의 기능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 것이다”라는 서(恕)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노사관계의 발전은 결속 관계와 분업 관계의 구분을 존중하면서 결속 관계의 우선성을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용자와 고용직은 분업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종래의 사용자의 신분적 지배관계로부터 노사협조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¹⁷

VI. 나가며: 편재성과 인문학

지금까지의 논의는 편재적 인문성과 편재적 문본성이라는 논제의 설득력을 위한 논의였다. 이 논제가 자명하게 확립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문학은 편재적이다〉라는 논제에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함축은 흥미할 만하다. 첫째는 21세기 학문적 현대성이 제기하는 양적 학문과 질적 학문 간의 거리를 극복하거나 좁힐 수

17. 강성용 교수는 성기성물 명제가 본질주의적 형이상학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부정적인 윤리 강령들을 함축한다고 하면서, 이 명제가 보다 근원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묻는다. 이 명제의 근원적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본질주의를 수용한다고 하여 윤리 강령들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칸트의 선형적 주체성은 사양하면서도 그의 자율의 개념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있다는 것이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양적 방법론은 자연이나 사회라는 〈모든〉 현상들의 과제에 총체적으로 적용하여 성공적인 설명들을 만든 데 반해, 영역별 인문학은 전통적 영역인 문자적 고전에 집중했기 때문에 현실의 탈문자적 문본에 대한 해석이나 성찰을 수행하지 않은 결과 인문현상의 〈부분〉에만 머물게 되었다. 그 결과 양적 학문과 질적 학문 간 비대칭성이 생겼다. 양적 학문에서 분야가 확장 혹은 융합한 것에 비해 전통적 인문학의 대비 효과는 축소된 것으로만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이 인문성과 문본성을 편제적으로 확장하여, 현실에 구현되어 있는, 그리고 구현될 수 있는 〈모든〉 인문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그 비대칭성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 편제성 논제의 두번째 함축은 그 동안 인간 역사가 인간관계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에 대한 반성이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연대 관계가 분업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정착시킨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처음 만나건 다시 만나건 두 개인 간의 관계는 분업 관계일 수 있고 연대 관계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1차적이어야 하는가? 만일 분업 관계를 우선시한다면, 이들은 서로를 분업의 기능에 따라 호칭하게 될 것이다. 분업의 기능에 따른 호칭은 인간 연대로서의 1차적 관계를 분업의 2차적 관계로 전도시킨다. 인간 연대의 우선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호칭은 반인문적이다. 법률적으로도 폐기한 신분제도의 편의적 복원이다. 누군가를 자신의 발밑에 두려고 하는 심리가 아닐지라도 그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계기에 무감각한 것이다. 승객이 택시를 타면서 “기사님, 서울역으로 가 주시지요”라고 말하는 경우, 말의 형식은 “아저씨” 같은 호칭을 피하여 공손하지만 승객은 운전자를 그렇게 호칭할 때 1차적 관계로서 인간 연대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상기시키지 않아도 되는 자명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2차적 관계인 분업 관계로 한계짓는다. 한국어는 연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에 따라 보살, 처사, 자매, 형제, 선생 등의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택시 승객이 처한 상황에서처럼 일반적 경우의 호칭을 발전시켜 오지 못했다. 아직도 분업 관계의 신분적 호칭에 익숙해 있다. 연대 관계를 1차적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 관계를 나타내는 각종 호칭을 개발해야 한다.¹⁸

마지막으로, 한국의 각종 교육 체제에서 편재적 인문성으로 사유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받은 사람은 진선미라는 필요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처럼, 또한 고전적 문자 문본뿐 아니라 현대적 탈문자 문본에 대한 해석, 분석, 음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각종 문본의 소비뿐만 아니라 각종 문본의 창조적 생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인문대학의 학과나 전공 제도에서 기존의 <영역별 인문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탈영역 인문학>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화를 향하여 각 대학교의 인문대학은 인문학 연구원들과 연대하여 이를 향한 논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원은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이다. 그렇다면 인문학 연구원은 탈영역 인문학의 전공 프로그램이나 학위 과정의 교육을 수행하여 연구원 설립시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인문학이 이러한 과제를 등한시 한다면, 새롭게 열리는 문화 시대의 탈문자적 문본은 상업 시장에 맡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업 시장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인문학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고 책무가 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그 양적 접근의 효율성을 통해 산업과 협동적 연대를 이루었듯이, 인문학도 인문성과 문본성의 편재적 성격에 착안하게 될 때 관련된 산업과 긴밀한 연대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8. 강성용 교수는 심포지움 토론에서 결속관계를 인간연대의 1차적 관계라는 이념적 제안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천적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개인 하나는 벽돌 하나처럼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벽돌이 모여 집을 이루는 것처럼, 소통하는 개인들은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세월호, 분단체제 같은 사안 앞에서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지만, 인간 역사 만년을 기다려 이제야 <모두가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의 낙관론을 갖게 되는 근거이기도 한다.

Works Cited

- Allen, Richard. "Looking at Motion Pictures." *Film Theory and Philosophy*. Ed. Richard Allen and Murray Smith. Oxford: Clarendon Press, 1997. 76–94. Print.
- Back, Jong-Hyun [백종현]. *Kanteuwa Hegerui Cheolhak: Sidaewau Daehwa* [Philosophy of Kant and Hegel: Conversations with Our Age, 칸트와 헤겔의 철학: 시대와의 대화]. Paju [과주]: Acanet [아카넷], 2010. Print.
- Choi, Young-Jin [최영진]. "Yugyoui Hyeondaehwa Munjewa Asiajeok Gachi" [Confucianism in the Context of Asian Values, 유교의 현대화 문제와 아시아적 가치]. *Hangukcheolhagui Jaengjeom* [Issues on Korean Philosophy, 한국철학의 쟁점]. Seoul [서울]: Cheolhakgwa Hyeonsilsa [Philosophy and Reality, 철학과 현실사], 2000. 121–49. Print.
- Chung, Daihyun [정대현]. *Majeumui Cheolhak Jilliwa Uimireul Wihayeo* [Philosophy of Fitting: Toward a Theory of Truth and Meaning, 맞음의 철학-진리와 의미를 위하여]. Seoul [서울]: Cheolhakgwa Hyeonsilsa [철학과 현실사], 1997. Print.
- _____. *Simseongnaeyongui Sincheseong* [Embodied Mental Content, 심성내용의 신체성]. Seoul [서울]: Acanet [아카넷], 2001. Print.
- _____. "Geureon Sasireun Eopda" [There is No Matter of Fact, 그런 사실은 없다]. *Cheolhakjeok Bunseok* [Philosophical Analysis, 철학적 분석] 10 (Winter 2004): 1–24. Print.
- _____. "Seonggiseongmul: Daeanjeok Gachireul Hyanghayeo" [Interconnected Realizations of Self and of All Others, 성기성물(成己成物): 대안적 가치를 향하여]. *Beomhanchaeolhak* [Beomhan Philosophy, 범한철학] 36 (Spring 2005): 97–125. Print.
- _____. "Seongui Jihyangseong: Iwonjeok Jihyangseongeseo Eumyangjeok Jihyangseongero" [Integrationality: From Dualism to Yinyang, 성(誠)의 지향성: 이원적 지향성에서 음양적 지향성으로]. *Cheolhaknonjip*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철학논집] 9 (Mar. 2005): 73–88. Print.
- _____. "Geuraham Nait Jeoniui Eoneoseong: Eoneorseoui Muyong" [Lingualism in Graham's Night Journey, 그라함 나잇 저니의 언어성: 언어로서의 무용]. *Muyongyesulhagyeongu*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무용예술학연구] 27 (Summer 2009): 95–115. Print.
- _____. *Igeoseul Jeoreokedo: Dawonjuuijeok Siljaeron* [This Spoken Thus:

- Pluralistic Realism, 이것을 저렇게도: 다원주의적 실재론. Seoul [서울: Sechang [세창출판사], 2013. Print.
- _____. “Jichingui Jayeonhwa–Eumyang Jonjaeroneul Hyanghan Jiching Gaeyeom Mosaek” [Reference Naturalized in Yinyang Ontology, 지칭의 자연화–음양 존재론을 향한 지칭 개념 모색]. *Cheolhak* [Philosophy, 철학] 120 (Aug. 2014): 27–52. Print.
- Chung, Daihyun, et al. [정대현 외]. *Pyohyeoninmunhak* [Expressive Humanities, 표현인문학]. Seoul [서울: Saenggagui Namu [생각의 나무], 2000. Print.
- Church, George, and Ed Regis. *Regenesis: How Synthetic Biology Will Reinvent Nature and Ourselves*. New York: Basic Books, 2012. Print.
- Gaus, Gerald F. “Property, Rights, and Freedom.”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1.2 (1994): 209–40. Print.
- Goodman, Nelson [군맨, 넬슨]. *Yesurui Eoneodeul: Gihoironeul Hyanghayeo* [Languages of Art: An Approach to a Theory of Symbols, 예술의 언어들: 기호이론을 향하여]. Trans. Kim Hye-Sook and Kim Hye-Ryun [김혜숙 & 김혜련 옮김]. Seoul [서울: Ewha Womans UP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3. Print.
- “Gojeon” [Classic, 고전]. *Gugeosajeon* [Korean Dictionary, 국어사전]. 6th Ed. Paju [파주: Minjungseorim [민중서림], 2006. 212. Print.
- Habermas, Jürgen [하버마스, 위르겐]. *Hyeondaeseongui Cheolhakjeok Damnon*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Trans. Lee Jin-Woo [이진우 옮김]. Seoul [서울: Moonye [문예출판사], 1994. Print.
- Kahneman, Daniel et al., eds [카네만, 대니얼 외 엮음]. *Bulhwaksilhan Sanghwangeseoui Pandan* [Judgment under Uncertainty,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Trans. Lee Young-Ae [이영애 옮김]. Seoul [서울: Acanet [아카넷], 2001. Print.
- Kant, Immanuel [칸트, 임마누엘]. *Kanteuui Yeoksa Cheolhak* [Kant’s Philosophy of History, 칸트의 역사 철학]. Ed. Lee Han-Goo [이한구 옮김]. Paju [파주: Seokwangsa [서광사], 2009. Print.
- Kim, Gi-Hyun [김기현]. *Hyeondae Insingnon* [Contemporary Epistemology, 현대 인식론]. 1998. Seoul [서울: Minumsa [민음사], 2011. Print.
- Kim, Sang-Hwan [김상환]. *Cheolhakgwa Inmunjeok Sangsangnyeok* [Philosophy and Humanistic Imagination,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Seoul [서울: Moonji [문학과 지성사], 2012. Print.

- Ko, Insuk [고인석]. “Paieobanteuui Popeobipan: Ironjeungsik Tejeui Uimi” [Feyerabend’s critique of Popperian Rationality of Science: Meaning of the Theory Proliferation, 파이어abend의 포퍼비판: 이론 증식 테제의 의미]. *Beomhanchaeolhak* [Beomhan Philosophy, 범한철학] 28 (Spring 2003): 5–30. Print.
- Lee, Jong-Gwan [이종관]. *Saibeo Munhwawa Yesurui Yuhok* [Cyberculture and Temptation of Art,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 Seoul [서울: Moonye [문예출판사], 2003. Print.
- Lee, Sung-Won [이성원]. “Mueosi Gojeoninga? Wae Gojeoninga?” [What is a Classic? Why is it Classic?, 무엇이 고전인가? 왜 고전인가?]. *Daehakgaehyeogui Gwajewa Banghyang* [Issues and Direction of University Reformation, 대학개혁의 과제와 방향]. Ed. Kim Nam-Doo and Kim Young-Sik [김남두 & 김영식 엮음]. Seoul [서울: Minumsa [민음사], 1996. 127–32. Print.
- Luther, Martin. “Commentary on Galatians.”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26 (November 1955): 801. Print.
- Margolis, Joseph. “Dance as Language.” *What is Dance?* Ed. Roger Copeland and Marshall Cohen. New York: Oxford UP, 1983. 376–89. Print.
- Mill, John Stuart.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8. Toronto: U of Toronto P, 1965. Print.
- Oh, Saeng-Geun [오생근]. *Misel Pukowa Hyeondaeseong* [Michel Foucault and Modernity, 미셸 푸코와 현대성]. Paju [파주: Nanam [나남], 2013. Print.
- Park, I-Moon [박이문]. *Yesulcheolhak* [Philosophy of Art, 예술철학]. Seoul [서울: Moonji [문학과 지성사], 1983. Print.
- . “Mihakgwa Yesulcheolhak”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미학과 예술철학]. *Yesulgwa Saengtae* [Art and Ecology, 예술과 생태]. Seoul [서울: Midasbooks [미다스북스], 2010. 27–52. Print.
- Park, Ynhui [박이문]. *Reality, Rationality and Value*. Seoul: Seoul National UP, 1998. Print.
- Park, Ynhui, et al. [박이문 외]. *Pyohyeoninmunhak* [Humanities on Expression, 표현인문학]. Seoul [서울: Saenggagui Namu [생각의 나무], 2000. Print.
- Quine, Willard Van Orman. *Word and Object*. Cambridge, MA: MIT Press, 1960. Print.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1971. Cambridge, MA: Harvard UP, 1993. 56. Print.
- Rorty, Richard.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 Philosophical Papers*. Vol. 1. Cambridge, UK: Cambridge UP, 1991. Print.
- Taylor, Charles. *Philosophy and the Human Sciences: Philosophical Papers 2*. Cambridge, UK: Cambridge UP, 1985. Print.
- Turvey, Malcolm. "Seeing Theory." *Film Theory and Philosophy*. Ed. Richard Allen and Murray Smith. Oxford, UK: Clarendon Press, 1997. 431-57. Print.
- Walzer, Michael.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1983. Print.
- Yeoum, Insun [염인선]. *Ingwajeok Jigangnongwa Gungmyeollon* [The Casual Perception Theory and a Notion of Aspect Seeing, 인과적 지각론과 국면론]. MA Thesis. Seoul [서울]: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2000. Print.

Abstract

The Ubiquities of the Humanities and Textuality in Human Experience

Daihyun CHU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so-called “crisis of the humanities”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an asymmetry between the natural and social sciences on the one hand and the humanities on the other. While the sciences approach topics related to human experience in quantificational or experimental terms, the humanities often turn to ancient texts in the search for truths about human experience. As both of these approaches have their own unique limitations, overcoming or rectifying the asymmetry between them is desirable. The present article seeks to do just that by advancing and defending the following two claims: a) that the humanities are ubiquitous wherever language is used, and b) that anything that can be experienced by humans is in need of interpretation. Two arguments are presented in support of these claims. The first argument concerns the nature of questions, which are fundamental marks or manifestations of human language. All questions are ultimately attempts to find alternative meanings or interpretations of what is presented. As such, in questioning phenomena, one seeks to transcend the oppression of imposed structures and in doing so reveals one’s humanity. Second, all phenomena are textual in nature: that which astrophysicists find in distant galaxies or which cognitive neuroscientists find in the structures of the human brain are no less in need of interpretation than the dialogues of Plato or the poems of Homer. Texts are ubiquitous. The implications of these two arguments are identified and discussed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the ubiquity of humanity and textuality points to a view of human nature that is neither individualistic nor collectivist, but rather integrational in suggesting that the realization of oneself is inseparable from the realization of all others (成己成物).

Keywords: non-symmetry between sciences and humanities, questions, digital technology, integrational anthropology, division of labour and relation of bonding

Daihyun CHUNG is Professor Emeritus at Ewha Womans University. He taught philosophy of language, philosophy of mind,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and he was involved at Ewha with some issues in minority perspectives and also with the humanities. He has authored seven books and has written about 100 papers. His recent publications in Korean include: *This Thus: Pluralistic Realism* (2013); “Reference Naturalized in Yin-Yang Ontology” (2014); and “Systematic Reason and Exploring Reason: How Reasonable i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isbanding of the UPP?” (2015).
chungdhn@ewha.ac.kr

Received: 26 February 2015 Reviewed: 27 April 2015 Accepted: 2 May 2015
